

지역 소식 통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폭염대응 현장점검 실시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운영 점검 △부안읍 농어촌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운영 점검 △터미널 앞 미스트폴 시설 작동 상태 확인 △재해복구사업장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 점검 △진서면 석포1마을 무더위쉼터 운영 점검 △해수욕장 수상안전점검 등 폭염 저감 시설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화영 부군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 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유지·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

고창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 구성원들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원광노인복지센터는 생활지원사 5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앞으로 △치매 환자 지원, △치매 연구 및 정보 공유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창군은 2019년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국립고창치유아카데미까지 총 7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비쿠폰 신속 집행 캠페인 전개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부안군은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으며 23일 기준 인구대비 39%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읍·면에서는 자체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신청 운영 기간은 오는 28

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다. 대상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읍·면 담당자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쿠폰 지급을 할 계획이다. 또 담당 직원 교육과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 도모에 앞장설 것이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 캠페인을 추진해 군민 체감도 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적극 이용하여 내수진작과 건강한 소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폭염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대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고창군 내 5개 농협에서 수매 중인 복분자 78점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78점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믿고 먹는 고창복분자’

고창 복분자,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우수’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고창군 내 5개 농협에서 수매 중인 복분자 78점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78점 모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복분자는 세척 없이 섭취하는 대표 과실로, 수확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수매 복분자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 없이 모두 허용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 결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 분석 장비 4대를 포함한 첨단 검사장비 45종을 확보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773건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다. 복분자를 포함한 농산물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고창군 농업인은 수확 1~2주 전 시료(0.5kg)를 채취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주 이내 통보되며, 출하 전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믿고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전 안전성 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입암단곡 간선임도 개설 본격화... 산림안전 기반 다진다

정읍시, 산불 예방 · 산림경영 효율화 동시 추진

정읍시가 입암면에 첫 간선임도를 개설하며 산불 예방과 산림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지난 23일 입암면 반월마을에서 주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입암단곡 간선임도 개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추진 일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선임도 사업은 입암면 연월리 반월마을에서 차단리 차단마을까지 약 5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다. 올해 1차로 1.95km를 우선 착공하고 2026년까지 나머지 구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간선임도는 폭 4m 내외의 산림도로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산주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갈수록 산불 위험이 커지는 요즘, 입암면에 첫 임도가 생긴다니 정말 반갑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도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산림 보호와 재해 예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공사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간정보 오류 잡는다... LX와 협약 맺고 품질 정비 본격화

정읍시가 재난안전과 도시계획 등 각종 행정에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본격적인 품질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LX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류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LX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공간정보 품질 개선 업무를 수행해왔다. 공간정보는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지도나 항공영상 위에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행정결정, 정책 수립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기관별 관리 기준이 달라 위치, 경계, 명칭 등이



정읍시가 LX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류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일치하거나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오류가 반복돼,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도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통시설 부문 공간정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8248건 중 오류로 진단된 527건을 대상으로 도로, 철도, 고속도로, 주차장 등의 위치와 명칭, 경계 등 핵심 데이터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공공정보로서의 공간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행정 정확도를 높이고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해상풍력 지역 채용 논란

‘부안군민 채용 0명’ 지역사회 반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한국해상풍력 사업이 부안군민 채용 없이 인근 고창군과 타 지역 인력만 일부 채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상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주)에 현재 직원은 파견 10명을 포함해 30여 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부안군민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 고창군과 전북 도내 타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대상지가 부안 해역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민 소외’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시범사업만 해도 연인원10만명고용, 지역자원금지급, 주민참여형 사업 청

사진을 내놨지만 지역에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에 주민은 “상생을 내세운 사업이라면 지역 우선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안 A어민은 “우리 바다를 활용하면서 정작 지역민에게는 일자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지역 참여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해상풍력(주)이 부안군민을 소외시킨 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채용, 보상,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